

제30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 9. 30.(금)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충청북도는 지리적으로 삼면이 내륙으로 둘러싸여 바다에 접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수변구역 지정 등 과도한 규제로 경제적 손실과 인구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충북은 국민들의 식수와 산업용수 공급, 환경보전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하며 국가발전에 이바지 해왔으나, 과도한 환경규제는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영동군은 전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3개 면을 통과하는 금강 본류 양안 500m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아, 이로 인한 지역발전 저하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현재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불합리한 규제 완화, 지역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을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한다는 내용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오랜 기간 규제를 감내한 충북도민과 영동군민에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충북의 지역발전을 이

루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영동군의회는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이번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하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 광역관광권 개발사업에 충북 내륙지역을 신규 광역관광개발 권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교통망 확충을 위한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영동~옥천~보은~청주~괴산~충주~제천~단양) 건설을 지원하라.

2022년 9월 30일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